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쟁이 오히려 전도 계기... 올해 성경 수천 권 전달”**



이란 내전으로 인한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하교회 사역에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쟁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신앙 공동체가 위축되기보다 오히려 확장되는 흐름이 감지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의 기독교 단체 미국VOM(Voice of the Martyrs USA)의 토드 네틀턴 부회장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주님은 신비로운 방식으로 일하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상황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영적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네틀턴은 “이란 정부와 당국이 전쟁 대응에 집중하면서 가정교회에 대한 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졌다”며 “성경 반입과 배포를 차단하는 데에도 이전보다 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폐쇄적이던 사역 환경에 예상치 못한 틈이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VOM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현지 교회 네트워크와 협력해 지도자 훈련과 성경 보급 사역을 지속하고 있다. 실제로 접근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이후 수천 권의 성경이 이란 내부로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 지하 신앙 공동체는 공격을 피해 도시를 떠났지만 공동체를 해체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새로운 거처를 ‘교회 캠프’처럼 활용하며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등, 이전보다 더욱 긴밀한 공동체를 형성하며 신앙 안에서 결속을 다지고 있다.

네틀턴은 “전쟁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과 영원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만든다”며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죽음 이후 무엇이 있는가’를 묻고, 신자들은 그 질문에 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복음 전파의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란은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 오픈도어의 ‘2026 세계 기독교 박해국 목록’에서 10위에 오른 국가로, 가정교회 급습과 장기 구금, 심문 등의 위험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현지 신자들 사이에서는 낙관적인 분위기가 감지되며, 많은 이들이 지금을 ‘영적 전환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부는 떠나기보다 남기를 선택하며, 전쟁 속에서도 복음 전파의 기회를 붙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디모데후서 4:2)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신비롭고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전쟁의 위급한 상황이 오히려 이란 땅의 복음전파의 기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란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 온전하게 되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기에 힘쓰게 하소서. 죽음과 영원에 대한 깊은 고민 가운데 있는 이란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빛을 받은 영혼들의 찬송 소리가 이란에 가득하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한국·멕시코 겨냥한 대규모 마약 수사 확대

미국 수사당국이 최근 한국발 마약 유통망과 멕시코 카르텔 관련 수사를 잇달아 확대하며 국제 마약 공급망 차단에 나섰다. 미 마약단속국(DEA)과 연방검찰은 한국에서 반입된 감마부티롤락톤(GBL)과 메스암페타민을 미국 동부 지역에 유통한 조직원 1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GBL은 산업용 용제로 사용되지만 체내에 들어가면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GHB(감마하이드록시낙산)로 변환되는 물질로, 미국에서는 '데이트 강간 약물' 원료로도 알려져 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조직은 뉴욕과 워싱턴DC 등에 유령 화장품 회사를 세워 한국산 GBL을 세정제·미용 제품으로 위장 수입했으며, 한국과 미국에서 대규모 압수와 체포가 이뤄졌다. 미국 당국은 이번 사건을 동부 지역 최대급 GBL 압수 사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멕시코 카르텔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미 법무부는 최근 멕시코 시날로아 카르텔과 연계된 현지 정치·치안 관계자들을 마약 밀매 및 무기 범죄 혐의로 기소하며 국제 공급망 차단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이 펜타닐과 메스암페타민 등의 미국 유입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관련 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 제시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해외 조직과 연계 세력까지 직접 겨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국경을 넘어 국제 마약 공급망 전체를 압박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출처: 기도24·365본부).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잠언 22:8,10)

하나님, 열방을 마약으로 병들게 하는 모든 카르텔과 유통망을 드러내어 파하여 주십시오. 미국 수사당국이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계 가운데 뻗쳐진 마약 공급망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모든 마약 조직원들에게 그 악행의 결과가 재앙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소서. 그들의 심령 안에 따리를 튼 거만한 사탄을 십자가 복음으로 쫓아내 주시고, 이제는 악을 뿌리는 자가 아니라 열방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 되게 하옵소서.

▲ 쿠바, 디젤·연료유 완전 고갈로 하루 20-22시간 정전

쿠바에서 디젤과 연료유 고갈로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다고 14일 뉴스1이 보도했다. 베센테 데 라 오 쿠바 에너지 장관은 국영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연료유도, 디젤도 전혀 없다"며 "비축분도 모두 소진돼 국가 전력망이 위기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부터 수도 아바나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정전이 급격히 늘었으며, 많은 지역에 하루 20~22시간 동안 전기 공급이 끊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쿠바 국가 전력망은 국내산 원유와 천연가스, 재생에너지로 운영되고 있다. 데 라 오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1,300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했지만, 불안정한 전력망으로 발전 효율과 공급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와 운송비가 상승하면서 더 악화됐다고 말했다. 쿠바는 그동안 베네수엘라 원유를 주로 수입해 왔다(출처: 복음기도신문).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하나님이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신명기 7:9)

하나님, 모든 원료가 고갈되어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쿠바 땅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국가적인 위기로 극심한 어려움 중에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사 주의 도우심으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사 이들이 죄인 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며 끝까지 인애를 베푸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새 일을 행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어려움 중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여 열방을 부요케 하는 나라 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전 세계 박해 감시단체들, 박해받는 교회들 위한 연합 기도 모임 출범



전 세계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섬기는 주요 기독교 사역 단체 지도자들이 연합 기도 운동을 새롭게 시작했다. 각 단체 대표들이 함께 모여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국제 종교 자유 운동의 연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움직임은 국제기독교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이하 ICC)가 주도했다. ICC 손 라이트(Shawn Wright) 회장은 최근 열린 종교자유파트너십(Religious Liberty Partnership, 이하 RLP) 연례 협의회에서 새로운 공동 기도 모임 출범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9개 기독교 사역 단체 대표들은 지난 4월 27일 첫 온라인 기도 모임을 가졌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만남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박해받는 약 3억 8,800만 명의 기독교인을 섬기는 사역 현장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RLP 창립 20주년 직후 나왔다. RLP는 지난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프라하에서 총회를 열고 지난 20년을 돌아보며 향후 비전을 나눴다.

2006년 설립된 RLP는 종교 자유를 옹호하고 박해받는 신자들을 지원하는 국제 네트워크로, 공동 대응과 정보 공유, 정책 협력, 현장 지원을 이어왔다. 특히 국가별 박해 상황에 대한 정보 교환과 긴급 구호, 국제사회 대상 공동 옹호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손 라이트 회장은 이번 기도 모임에 대해 “먼저 함께 기도하고, 이어 세계 각지의 현장부터 워싱턴 D.C.까지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모임은 단순한 협의체가 아니라 영적 연합에 기반한 네트워크”라며 “서로 다른 단체들이 경쟁이 아닌 동역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의 응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수님은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됨을 원하셨다”며 “일치는 선택이 아닌 사명이며, 우리의 단결은 세상 앞에 드러나는 증언”이라고 덧붙였다.

박해 사역은 안보, 종교 갈등, 인권, 난민 문제 등이 얽혀 있어 단일 기관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고 외교·법률·구호·목회 지원을 연결하는 협력 체계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번 기도 모임은 이러한 필요에 대한 실질적인 첫걸음으로 평가된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요한복음 14:12-13)

하나님, 열방의 박해받는 교회들을 위해 기독교 사역 단체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친히 행하신다는 약속을 믿는 단체와 교회가 더욱 일어나 기도의 대 연합을 이루게 하옵소서. 선교가 완성될 크고 놀라운 일에 우리의 기도를 통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열방의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함께 응답하여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해 복음과 기도로 전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의 영광을 속히 보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국제기독교연대 “나이지리아 정부, 성도 대상 조직적 폭력 묵인”

국제 기독교 인권단체 국제기독교연대(ICC)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나이지리아 내 기독교인 대상 폭력이 국가의 묵인과 구조적 실패 속에서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무장 풀라니 민병대와 보코하람, 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지부 등이 교회와 기독교 마을을 공격해 살해·납치·방화를 자행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충돌이 아닌 “공포를 통한 축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ICC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사전 경고에도 நட장 대응을 반복하고, 체포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ICC는 국제사회가 폭력 원인을 기후 변화나 토지 갈등 중심으로만 해석하고 있다며, 실제로는 기독교 공동체가 집중적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과 서방 정부에 국제 조사 확대와 제재, 피해 공동체 보호 및 난민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나이지리아 사태가 종교 갈등만이 아니라 민족·경제·치안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분석하며, “기독교인 집단학살”이라는 표현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는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이사야 49:16,19)

하나님, 국가 조차도 기독교인들을 향한 조직적인 폭력과 공격을 외면하는 이 때, 그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함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바닥에 나이지리아 교회를 새기시고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돌보심으로 그들이 힘과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황폐하고 적막하며 파멸이 가득한 형편 속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나이지리아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속히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교회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 땅을 덮어 모든 이들이 주님을 찬송케 하소서.

▲ 이탈리아 법원, 4세 아동에 ‘법적 부모 3명’ 인정 판결

이탈리아 법원이 4세 아동에게 법적 부모 3명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뉴스1이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해당 아동은 독일에서 태어나 동성 결혼한 남성 2명과 함께 생활해 왔으며, 그중 1명은 아동의 생물학적 아버지다. 이 남성은 자신들의 친구인 한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얻었고, 이탈리아계 독일인인 다른 남성이 독일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했다. 이후 이탈리아에서도 입양 인정 신청을 했지만, 지방 당국은 해당 아동이 해외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것으로 의심해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이탈리아 바리 항소법원은 “대리모 계약은 없었다”며 기존 결정을 뒤집고 입양 사실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해당 아동은 생물학적 부모와 입양 부모를 포함해 모두 3명의 법적 부모를 가지게 됐다. 이들을 대리한 변호사 파스카 만프레디는 “세 사람 모두 아이의 부모가 되기를 원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해당 판결은 이탈리아 의회가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시민 결합’ 법이 통과된지 10년 만의 일이다. 가톨릭 단체 ‘프로 비타 & 패밀리아’는 이번 판결이 가족법 질서를 흔들고 미성년자를 사회적·이념적 실험에 노출시킨다고 판결을 규탄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에스겔 18:31-32)

하나님, 절대적인 진리를 가리고 죄를 옳다 말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람들을 부추겨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게 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악한 간계를 파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돌이켜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선포되게 하사 이들이 주께로 돌이켜 생명 얻는 은혜를 주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자신이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의 진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3년째 이어지는 인도 북동부 마니푸르주 폭력 사태



인도 북동부 마니푸르주에서 벌어진 민족 간 폭력이 3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대규모 인명 피해와 종교 시설 파괴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3년 5월 시작된 이번 사태로 공식 사망자는 최소 217명이며, 일부 추정치는 260명을 넘는다. 특히 300개 이상의 교회가 파괴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종교 갈등의 성격도 뚜렷해졌다.

피해 규모는 인도 주요 기독교 연합체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인도가톨릭주교회의, 인도교회협의회, 인도복음주의연합이 참여한 공동 조사에 따르면 교회 파괴와 민간인 피해는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최근까지도 폭력은 멈추지 않고 있다. 2026년 4월 전역에서 새로운 충돌이 이어졌으며, 메이테이, 쿠키조, 나가 공동체가 모두 연루됐다. 특히 로켓 공격으로 어린이 2명이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긴장이 다시 고조됐다. 유가족은 시신 인수를 거부하며 정부에 정의와 안전 보장을 요구하는 등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갈등의 핵심에는 구조적 불균형이 자리한다. 인구 약 300만 명의 마니푸르는 계곡과 산악 지역으로 나뉘는데, 힌두교 중심의 메이테이 공동체가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반면 기독교 신자가 다수인 쿠키조·나가 공동체는 넓은 토지를 차지하고도 정치적 대표성과 경제적 기반에서 크게 뒤처져 있다.

직접적 도화선은 2023년 마니푸르 고등법원이 메이테이에게 지정 부족 지위 확대를 권고한 결정이었다. 기존 부족 공동체는 이를 생존권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부족 연대 행진’을 계기로 충돌이 폭발적으로 확산됐다. 초기 며칠 동안 수백 개 교회가 공격받았고, 이후 민간인과 종교 시설을 겨냥한 폭력으로 번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개종 강요 사례까지 보고됐다.

정치적 책임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당시 주지사였던 N. 비렌 싱의 폭력 선동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녹음은 인도 대법원에 제출돼 현재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사태 초기 장기간 침묵하며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 마니푸르는 사실상 공동체별로 분리된 상태다. 군과 완충지대가 지역을 나누고 있으며, 약 5만 8천 명이 넘는 주민이 난민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다. 7,800채 이상의 주택이 파괴됐고, 복구 지원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의지와 구조적 불균형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마태복음 5:9-10)

하나님, 3년째 폭력사태로 분열과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인도의 마니푸르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힌두의 메이테이와 기독교의 쿠키조로 민족 간에 나눠게 하고, 서로를 미워하며, 죽고 죽이게 하는 원수의 모든 간계를 파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몸 된 교회가 핍박과 억울한 상황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사명과 복음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일어나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을 복으로 여기며 주님의 평화를 이 땅에 선포하는 예수교회 되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아르헨티나 목회자들, 콘코르디아에 식량과 정신 건강 긴급 지원 촉구

아르헨티나 콘코르디아 지역의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빈곤과 영양실조, 약물 중독, 자살 증가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지방 정부에 식량·정신 건강 비상사태 선포를 촉구했다. 콘코르디아연합목회협회(APUC)는 시장과 시의회에 공식 서한을 보내 “최근 몇 달 사이 지역 사회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취약 계층 가정이 깊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목회자들은 현재의 공공 정책만으로는 위기 대응이 부족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PUC는 주법에 따른 식량 비상사태 시행과 함께 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영양 상태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약물 남용과 자살 증가를 “공동체 붕괴의 징후”라고 지적하며 정신 건강 비상사태 선포와 전문 지원 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거리와 쓰레기 수거장 주변에서 음식을 찾는 시민들의 현실을 언급하며, 단속이나 강제 이주가 아닌 인간의 존엄 회복을 위한 통합적 사회 정책과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흠여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고린도후서 9:8-9)

하나님, 모든 은혜를 능히 넘치게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아르헨티나의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콘코르디아 지역의 취약 계층 가정이 겪는 극심한 고통을 불쌍히 여기사 정부와 지역 사회가 함께 연합하여 연약한 자들을 함께 돌아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 땅의 교회가 주께 받은 풍성한 은혜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넉넉한 연보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르헨티나 교회 안에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 중국 청년층, AI로 점친다… “빠르고 저렴해 인기”

중국 청년층 사이에서 인공지능(AI) 점술이 저렴한 비용과 신속성 등을 이유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12일 뉴시스가 사우치이나모닝포스트를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딥시크(DeepSeek) 점술’ 관련 해시태그 조회 수가 5,500만 회를 넘겼으며, 청년들은 진로, 연애운 등을 AI 상담으로 해결하고 있다. AI는 재미두수(생년월일시로 운명을 점치는 것)부터 타로카드, 관상·손금 풀이 등 다양한 점술 방식으로 즉각적인 해석을 내놓는다. 일부 이용자들은 유료 점술 앱 분석 리포트나 운세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폰 악세서리 구매에도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빠른 응답과 저렴한 가격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용자들은 AI가 인간 점술가보다 공감 어린 어조로 맞춤형 조언을 제공한다고 평가한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모호하고 일반적인 답변에 불과한 ‘사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점술뿐 아니라 사찰 참배, 공덕을 쌓는 ‘디지털 목탁’ 앱 등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아이미디어 리서치에 따르면, AI 점술 시장 규모는 2024년 120억 위안(약 2조 6,156억 원)이었으며, 매년 40%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이용자의 70% 이상은 18-30세로 조사됐다(출처: 복음기도신문).

네가 좇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신명기 18:14-15)

하나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점치며, 헛된 행복을 위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시대가 바뀌며 그 모양은 바뀌었지만 죄 된 존재는 바뀌지 않음을 봅니다. 주님, 목마른 중국의 청년 세대들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죄의 길을 떠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예수교회로 그들을 일으켜 주소서. 십자가에서 존재가 변화된 중국 청년들을 통해 중국과 열방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